

# KIAS News

## 8월 14일 명효철 원장 '2008 한미 과학, 기술, 기업가 컨퍼런스' 참석

고등과학원 명효철 원장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2008 한미 과학, 기술, 기업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컨퍼런스는 재미과학기술협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미 과학협력센터와 함께 주관한 것으로 '응용 및 순수수학에 관한 심포지움'과 같은 총 12개 전문분야의 심포지움으로 이루어졌다. 명효철 원장은 8월 15일에 열린 '응용 및 순수수학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대수학과 조합론' 세션의 좌장으로 활동했다. '대수학과 조합론' 세션에서는 1994년 필즈상 수상자이자 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인 에픽 젤마노프 교수가 '유한군의 점근론'에 관해 강연했다.

## 9월 19일 고등과학원 추계 체육대회

고등과학원 교직원 및 방문연구자들 60여명은 9월 19일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에서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축구와 배구, 족구, 이어달리기 경기 등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각각 네 팀으로 나뉘어 서로 합심하며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경기 결과, 최종 우승은 수학부에 돌아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멤버들 또는 평소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멤버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체력 증진 뿐 아니라 팀워크와 친목을 다지는데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 9월 30일 고등과학원 개원 12주년 기념행사

고등과학원은 9월 30일 오후 3시 국제회의실에서 개원 1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올해로 10년간 근무해 온 3명에 대해 장기근속상이, 8명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학술상이 수여됐다. 또한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공적상 및 기여상, 모범상 등이 주어졌다. 이 자리에서 명효철 원장은 현재 1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Open KIAS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과 고등과학원이 앞으로 더욱 번영하는 기관이 될 것을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했다.

## 10월 6일 이주영 교수 연구팀 '2008 하반기 창의연구 과제'에 선정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이주영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2008년도 하반기 창의연구 신규과제' 중 수리과학분야에 선정되었다. 이주영 교수의 연구단 명칭은 'In silico 단백질 연구단'이며 고등과학원 연구진 이외에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석차옥 교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인호 박사 등이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 'In silico 단백질 연구단'은 단백질 디자인 방법 및 단백질과 다른 생체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 방법 연구 등을 통해 기초과학분야뿐 아니라 신약 및 신물질 개발 등의 응용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월 7일 노벨물리학상 대언론 브리핑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전응진 교수, 황호성 연구원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이 발표되는 시각(현지시각 오전 11시 45분)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4시간여에 걸쳐 과학기술기재단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와 관련하여 대언론 브리핑을 하였다. 이번 노벨물리학상은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해 우주의 대칭성이 깨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일본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전응진 교수는 "대칭성 깨짐은 표준모형의 토대를 이루는 만큼 이들이 물리학과 우주론에 기여한 비는 매우 크다"며 "새로운 거대강입자가속기(LHC)의 실험이 대칭성 깨짐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 10월 21일 캐나다 수학회 초청 콜로키움

고등과학원 수학부는 한국과 캐나다간 수학분야 협력을 위해 캐나다 수학회 임원진을 초청하여 10월 21일 고등과학원에서 콜로키움을 가졌다. 캐나다 수학회 회장인 안토니 라우(Anthony Lau) 교수를 비롯하여 태평양 수리과학연구소(Pacific Institute for the Mathematical Sciences, PIMS) 소장인 알레안드로 아데미(Alejandro Adem)교수를 포함한 총 4명의 캐나다 수학자가 방한하였다. 양국 수학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우수 학자들의 교류 및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아카데미 강연

고등과학원 수학부 금중해 교수는 10월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과학아카데미 강연을 펼쳤다. '한국 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수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과학아카데미는 과학기술지재단이 과학관련 이슈들 중에 전문적인 내용을 선정하고 그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매월 1회 강연을 개최하여 궁극적으로는 대중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과학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중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수학의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수학의 심미성과 실용성, 현대 수학의 응용사례, 한국 수학의 IMU 등급 상향조정 등에 관해 설명한 후 기자들과 1시간여에 걸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10월 29일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수상

고등과학원 연구원 출신인 박미희 중앙대 교수와 홍현숙 전북대 교수가 10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3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 신진과학자상'을 나란히 수상하였다.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은 여성과학자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업적이 탁월한 이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적을 널리 알려 미래 여성 과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11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Bright Africa 수학 경진대회' 후원

고등과학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 기관의 Outreach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2회 Bright Africa 수학 경진대회'를 후원하였다. 경진대회는 지난 5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달루부레 초등학교와 웨스뱅크 지역의 3개 초등학교 그리고 림파스막의 2개 초등학교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에 고등과학원은 작년보다 더 많은 학교를 후원하여 6개 초등학교 총 249명의 학생들에게 고등과학원장상을 수여하였다.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자 100명' 선정

물리학부 이필진 교수의 연구업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필진 교수의 성과명은 '초대칭 이론에서의 자기홀극 역학과 양면성 연구'이다. 이 외에도 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출신인 세종대 오병권 교수가 '정수방정식에 있어서 정수해의 불규칙성 증명'으로, 경희대 이수준 교수가 '뫼비우스 변환, 비국소성, 양자통신과의 관계 규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